

<2021년 12월 14일 화요일 새벽, 주 말씀>

* 새벽 설교를 할 때는

항상 <주일말씀 주제>를 먼저 읽고 인식시켜 주고,
그다음에 <잠언>을 전해 줘야 된다.

모두 금주 말씀에서 나온 잠언들이니,
<주제>를 생각하면서 들어야 ‘그에 해당되게’ 깨닫는다.

* 설교자는 <잠언>을 읽어주기만 하지 말고,
잠언을 한 절, 한 절 풀고 해석해 주면서 설교해 주어야 한다.

1. 시대 신부가 됐어도, 마음과 생각과 몸을 단장하고 신부같이 행하면 신부라는 것을 실감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감하지 못한다.
2. 하나님의 천 년 혼인 잔치 역사에 참여해도, 자기가 믿고 기도하고 행하면 실감 있게 생각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실감도 못하고, 믿기지도 않는다.
3. 새 시대를 맞았어도 그날그날 행하고 실천해야, 실감 있게 느끼고, 실체를 얻게 된다. 시대를 껴안고 오신 주를 붙잡고 있어도 행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무의식 속에 살아가게 된다.
4.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를 붙잡고도 가만히 있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를 깨닫고 생각하며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5. 마음도 생각도 가만히 있으면, 잠자는 마음과 생각, 혹은 죽은 마음과 생각이다.
6. 성약시대가 왔어도 믿고 행해야, 느끼고 알고 실감 있게 살아가게 된다.
7. 주를 맞았어도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며 같이 행해야, 주가 더욱 믿어지고 실감하며 살아가게 된다.
8.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마치 눈과 같아서 눈으로 목적인 것을 쳐다보면 실감하고, 안 쳐다보면 실감하지 못하듯이, 생각하면 느끼고, 생각하지 않으면 못 느낀다.
9. 안 보았어도, 생각하면 느낀다.
10. 주를 믿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일체 되어 행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대로 행하여 육도 영도 주의 뜻대로 만들어지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 자기 주관권에 갇혀 살게 된다.
11. 주와 일체 되어 그 생각대로 자기를 만들어야, 하나님께서 주를 통해 주시는 뜻을 제대로 이루고, 그에 해당되는 축복도 실감 있게 누리며 살게 된다.
12. 생각을 완전하고 생생하게 하며, 행함도 확실하게 해야, 하나님

의 역사를 실감 있게 느끼고 살게 된다.

13. 기도해야 영적으로 느끼고 행하게 되니, 현실을 확실하게 느끼며 살게 된다.

1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를 믿고 따르며 일체 되어 행해야, 삼위와 주의 사랑을 생생하게 느끼며 살게 된다.